

나만의 교육센터 'DBGuide.Net'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DB 시스템을 관리하는 DB 실무자들에게는 설계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DB 시스템의 운영부터 각종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이런 현업의 실무자들에게 DBGuide.Net의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저렴하게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실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효과를 본 사례들을 살펴본다.

글 **조기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인적자원개발팀 선임

“개발자의 길로 들어선 이상, 평생 공부는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DBA인 이상락 씨가 전하는 말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끊임 없이 공부하지 않고는 한 기업(기관)의 IT 시스템을 책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고, IT 인프라가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전산 담당자들의 기술 습득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DB 시스템의 경우 CRM이나 ERP·BI·DW 등 기업내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기간 인프라인 만큼 DB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관리 기술 배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전산 실무자 3,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1%인 3,361명이 현재의 업무를 위해 교육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무 교육에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현업에 종사하는 DB 실무자들의 현실이다.

시간은 자유롭게, 비용은 저렴하게

이상락 씨는 이런 점에서 DBGuide.Net의 온라인 교육을 호평한다. DBA로서 필요한 오라클 DBMS와 MS SQL에 대한 성능 관리 관련 지식을 DBGuide.Net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상락 씨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무료 교육이 많아 회사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무료 온라인 강의나 적립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저렴한 온라인 교육을 주로 활용한다”고 전한다. 또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DB 관련 벤더들이 진행하는 세미나가 많이 있지만, 이 보다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객관적인 정보 취득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 세미나와 튜닝 관련 세미나에 2~3번 참석해, 실무에 적용할 만한 활용 팁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상락 씨는 말했다.

한국오르비스 DB 운영자인 고현석 씨도 DBGuide.Net 온라인 강좌를 자주 애용하는 편이다. DB 운영 기술이나 관리 팀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고급 정보를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창구라는 생각 때문이다.

고현석 씨는 특히 오라클 DBMS의 백업 부분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주로 듣는다. 백업의 경우 책이나 기술문서에서 활용 정보를 접하기 힘든 부분인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설명과 활용 예를 들 수 있는 것이다.

고현석 씨는 “비용이 매우 저렴한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충실한 내용을 전달해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재직 중인 이정세 씨는 오라클 DB의 파티션 테이블 구성 방법과 백업 방법에 대해선 DBGuide.Net의 온라인 강의만으로 교육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오라클 DB 운영 실무에 대한 교육센터의 강의가 많이 있지만, 일정상 2~3일간 전일 또는 반나절의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맞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DBGuide.Net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처음엔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며 강의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후 10여개 정도의 파티션 테이블 구성과 백업에 대한 관련 온라인 강의를 섭렵했고, 이를 바로 실무 인프라에 적용해보는 자체 테스트도 진행했다. 이정세 씨는 “센터의 교육에 참가하느라 상사 눈치 보면서 며칠씩 자리 비운 동료보다 더 앞선다”며 뿌듯함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DB 설계 공모 대전 시상식

DB설계공모대전도 도전해볼 만한 과제

다른 형태로 DBGuide.Net을 교육 창구로 활용한 예도 있다. 세아정보기술의 최대홍 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최한 데이터베이스설계공모대전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총 65건의 응시자료 중 심사를 거쳐, 대상(1건), 우수상(3건), 장

교육과 세미나, 각종 행사에 참가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량을 높이는 DB 실무자들이 연간 202만8,600명(2005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 중 86%는 DBGuide.Net의 정보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프로젝트 기간을 약 1.3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

온라인 교육 동영상

려상(3건)을 시상했는데, 그 중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우수상을 수상한 것.

최대홍 씨는 “데이터모델링 스테디에서 공부했던 이론을 시험해보고 싶어 참가했는데, 엔터티 도출 등 산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알고 있는 이론을 기반으로 DBGuide.Net의 산출물 정보들을 활용, 참고하는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공모전 참가를 실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DBGuide.Ne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센터 자체 조사 결과, 2005년 12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설계·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 DB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하에 DBGuide.Ne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정보 및 교육을 넘어 최근엔 온라인 상담, 자동화 상담, DB 튜닝 진단 등 실질적인 DB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